

대구광역시의회 192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활동 모니터 평가보고서

- 2010년 11월 25일(목)
-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시의정감시활동위원회

<모니터 활동 및 평가 개요>

■ 모니터 기간: 2010. 11. 11~ 19/ 행정사무감사활동 기간

■ 모니터 대상: 운영위원회를 제외한 5개 상임위와 의원

■ 모니터 방식: 각 상임위별 감사현장 방청 및 인터넷 방송 청취

■ 모니터 단체: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시의정감시활동위원회

대구KYC, 대구여성회, 대구DPI, 대구환경운동연합, 참교육학부모회대구지회, 대구참여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민족예술인총연합대구지회, 주거권실현대구연대,

■ 평가 기준, 방식

○ 평가 기준

가. 감사활동 태도

- 출결, 지각, 이석 등 기본적 성실성을 갖추었는가?
- 감시자로서의 태도: 발언 및 책임추궁에 적극성을 보였는가?

나. 감사활동 내용

-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는 수준의 단순 사실확인, 단답형 질의 제외
- 주요하게 다루어진 의제들을 중심으로 평가
 - : 주요의제와 관련된 대구시 행정에 대해 얼마나 매섭고 논리적인 문제제기를 하였는가?
 - : 주요의제와 관련된 대구시 행정에 대해 얼마나 구체적으로 책임을 추궁하고, 시

정조치 요구를 하였는가?

: 주요의제와 관련된 대구시 행정에 대해 얼마나 정책대안이나 제도개선 대안을 제시하고 구체적 답변을 이끌어 내었는가?

○ 평가 방식

가. 위 평가기준을 중심으로 주요하게 다루어진 의제가 무엇이며, 이에 관해 의원들이 얼마나 감사주체로서의 태도를 견지하였는지, 누가 좀더 논리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매섭게 책임을 추궁하고, 구체적으로 시정조치를 요구하거나 대안을 제시하였는지를 평가자 시각에서 정성적으로 평가하였음.

나. 출결, 지각, 이석 등 정량적인 평가가 가능한 부분 역시 평가에 반영하였으나 그 비중을 크게 놓지 않았음. 내용적 평가가 무의미할 정도로 불성실하지 않았다면 가)항을 중심으로 평가하였음.

○ 우수의원 선정

따라서 이번 평가의 기초는 상임위별로 어떤 의제들이 주로 다루어졌고, 어떤 점에서 적절하게 감사했고 어떤 부분이 미흡했는지 평가하고, 이중에서 위 가)항을 기준으로 어느 의원이 상대적으로 돋보이는 활동을 하였는가를 평가하여 우수의원을 선정하였음. 단, 상임위원장은 회의진행자의 특수성을 고려 평가대상에서 제외하였음.

<평가결과 보고- 종합>

1. 행정사무감사 주요의제 개괄

운영위원회는 의회운영과 의회 사무처 행정에 관한 사항을 간략히 다루므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5개 상임위원회에서 주로 다루어진 의제들을 개괄하면 아래와 같다.

1)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대구시 읍부즈만 운영 관련 대구시의 지원문제와 확대 실시 관련 문제 ▲자의적 비정보공개 문제 지적 및 자발적 정보공개 활성화 주문 ▲사회단체보조금 법정단체 중복지원, 균형감 부재의 문제 ▲정책실명제 이행상황 점검 및 실명제 확대 주문 ▲시산하 공원 등 사업소의 자판기 수익금 횡령사건에 대한 감사관실의 부실처리 책임추궁 등이 주로 다루어졌다.

2) 문화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여성분야에서 ▲포항인덕요양원 화재사건관련 대구시 복지시설의 소방안전 점검 현황과 실태 ▲보육시설의 평가기준과 예산 차등지급의 이유, 보육시설 지도점검내용과 조치사항 ▲심뇌혈관 등록관리 시범사업 중단 문제, 이를 중단하고 스마트케어사업을 추진하는 문제 ▲성매매업소 집결지 관련 폐쇄 노력, 성매매 방지단속의지 및 신변종업소에 대한 대구시 대책 등을 주로 다루었고, 문화예술 및 관광분야는 ▲문화재단의 기금마련 및 대구문화관 건립문제 ▲시립미술관 입지와 운영체계 문제 ▲대구근대역사관과 시립문학관 및 전통문화컨텐츠 콘텐츠 확보 문제 ▲팔공역사공원 백지화를 둘러싼 문제와 승시행사의 실효성 문제 등이 도마에 올랐다.

3) 경제교통위원회가 다룬 쟁점의제는 ▲국제학교 투자자의 투자협약불이행과 대구시의 부실행정 문제 ▲기업투자유치 관련 역내기업 유사기업 중복유치로 인한 피해와 투자유치활동 평가시스템 도입 문제 ▲신성장동력사업에 기업의 투자 저조 및 지방비 과다 매칭으로 인한 재정압박 문제와 대책 ▲연구개발특구지정 관련 대구시의 정책혼선과 행정지도 부실 문제 ▲국립과학관 국비보조가 대전의 100%와 달리 70%밖에 되지 않는 것에 관한 책임 추궁 ▲한일극장 횡단보도 설치약속 지연 문제와 대중교통전용지구 관련 교통혼잡 문제와 대책 ▲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 대책과 지하철 역사 민간위탁으로 인한 안전 및 서비스 부실 대책 등이었다.

4) 건설환경위원회에서는 ▲특색없는 대구시 도시디자인 정책과 도시브랜드 문제 및 관련 간판정비사업 문제점과 불법광고물 대책 ▲미분양아파트 해소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 개선 문제 ▲쓰레기매립장 건축폐기물 불법 반입 문제 ▲발암물질 석면피해 대책 ▲노곡동 침수문제 책임문제와 방지대책 관련 ▲도시고속도로 지정체 관련 대구시 부실행정과 대책 문제 ▲낙동강취수원 이전 관련 행정대책 부재 ▲달성습지 보전대책 등이 주로 다루어 졌다.

5) 교육위원회 감사에서는 ▲교육청 관내 학교 공사 수의계약의 기준이 불명하고 비교견적서가 없는 등 업체선정부터 공사 전반의 투명성 부재의 문제 ▲무상급식 관련 문제 ▲국제학교 관리전환 관련 문제 ▲학교운동장 인조잔디의 환경유해성 문제 ▲사립학교의 법정전입금 납부가 전무한 문제 ▲학원의 불법 심야학습과 고액과외 문제 등이 주요하게 다루어졌다.

2. 눈에 띈 감사활동

1) 행정자치위원회 감사에서 ▲현재 시정정책의 책임자가 제대로 기명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을 전면적으로 확대하여 작은 사업이라도 책임

성 있는 운영 등을 주문한 점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무책임하고 자의적 행정정보공개 관행을 근절하고, 행정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자발적인 정보공개목록을 작성, 공개할 것을 주문한 점 등은 그 의미를 평가할 만하다.

2) 문화복지위원회 감사 중에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한 의원들의 관심과 청소년 자살률 1위인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대구시의 정책적인 현황을 날카롭게 따져 물을 점 ▲심뇌혈관질환 진료지원사업이 중단된 이유와 행정의 책임을 묻고, 이것은 중단하면서 스마트케어 사업에 별도의 큰 예산을 들이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 ▲대구야구장 부지선정 문제와 문화재단의 기금마련, 시립미술관의 부지와 기능, 한상대회 이후 제기된 국제행사 유치시 우려되는 제반조건의 문제를 거듭 지적한 것도 적절했다고 보인다.

3) 경제교통위원회의 경우 ▲국제학교에 200만불을 투자하기로 했던 미국 투자자가 투자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고 학교운영이 학생들의 등록금, 급식비 등에 의존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투자자의 투자능력 검증 부재 등 대구시의 부실행정을 추궁한 것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사업화한다는 연구개발특구사업이 당초 취지와 달리 기업들의 특성과 요구를 감안하지 않고 제조업이 많은 지역에 특구지정을 추진하는 등 정책 일관성 부재를 지적하고, 특구나 산업단지의 기관, 사업들을 총괄적으로 기획, 조정하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촉구한 점 ▲신성장동력사업비 중 기업의 투자가 매우 저조하고, 국비 매칭도 수도권은 74%인데 대구는 35%에 불과하여 시 재정압박의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과 기업투자를 위한 행정의 리더십 및 지방비 매칭 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책을 촉구한 점 등이 눈에 띈다.

4) 건설환경위원회 제기한 ▲대구시의 특색이 반영되지 않은 디자인에 대한 지적, 지역별 특색을 살리는 도시브랜드를 추구하자는 지적 ▲제일모직 부지 문제와 관련된 대구시의 도시정책 부재 문제, 주택정책에 대한 대구시의 소극적 자세와 미분양 아파트 해소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 노력을 촉구한 점 ▲쓰레기매립장에 들어올 수 없는 건축폐기물이 불법적으로 반입되는 것에 대한 단속 필요성을 지적한 것이나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의 위험성을 언급하며 대구시의 종합관리계획이 꼭 필요하다는 지적 ▲노곡동 문제는 원인 분석을 통한 재발방지와 사건의 책임을 묻는 것이었는데 대구시 건설심의위원회의 책임을 묻고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안일한 대구시의 책임을 묻는 질의가 돋보였고 대구시가 복구청에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행태에 대한 지적도 적절하였다.

5) 교육위원회의 경우 ▲달성군의 무상급식이 결정될 동안 더 어려운 서부사정 호소에 둔감하지 않았냐고 책임감을 일깨운 점 ▲'사립학교 법정분담금' 납부가 10% 이하라는 지적과 함께 똑같이 어려운데 90%가까이 분담하는 학교와는 형평성차원

에서도 전입금은 반드시 납부하도록 유도하고 법정교부금을 차등 지원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시한 점 ▲공시지가가 수십 년간 상승되었는데 법인기본 재산변동 사항은 똑같아 세원자료가 미비한 것에 대한 지적 등이 눈여겨 볼 만하다.

3. 감사활동의 여러 문제들

1) 감사활동 주체로서의 기본자질이 여전히 아쉽다.

일부 의원의 경우 출석을 하지 않거나 지각을 하는 경우도 여전히 있고, 본인 질의가 끝나면 장시간 자리를 이탈하거나, 감사도중 졸거나 하품을 하는 등 눈살○르 찌푸리게 하는 행태도 없지 않았다.

본인이 요청한 자료가 제출되었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재차 요구하거나, 지나치게 잡다한 민원에 집착한 질의를 하거나, 지인이 어떤 이야기를 하길래 물어봤다거나, 아는 의원이 이렇다고 추천하길래 이야기한다 등 시의원 수준에 걸맞는 조사나 연구가 아니라 개인적인 취향에 기대어 질의하는 경우도 있었다.

성매매가 허가되는 지역이 있는가 하고 질의하여 실소를 자아내는가 하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인양 질의하는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기본정보조차도 갖추지 않은 의원들도 더러 있어 실망스럽기 짝이없다.

달성습지보존과 관련해서는 추후에 따로 보고하겠다는 비상식적 답변에 대해서도 제대로 따지지 않거나, 학교폭력 사건 등 학교측의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에 오히려 격려로 일관하는 등 감사인의 태도에 역행하는 모습까지 보이는 것은 더욱 실망스러운 모습이다.

2) 책임추궁, 시정요구, 대안제시에 이르지 못하는 주변적 감사 활동

많은 의원들이 시정책심 정책들을 파고들지 못하고 주변적 정책들에 대한 가벼운 지적에 그치거나 매년 반복되는 문제를 체크하는 수준을 넘어서지 못했다.

중요한 시책에 대한 의원들의 사전학습이 부족하고 행정의 오류를 찾아내기 위한 깊이 있는 연구가 부족했다고 볼 수 있다. 또 중요한 정책에 대한 질의, 지적도 중저강도에 머물렀으며 매섭게 추궁하여 책임을 묻거나 대책을 제시하여 답변을 받아내는 데까지 이르지 못하였다.

예를들어 문화재단의 경우 재단의 업무에 대한 언급보다는 지나치게 기금마련 문

제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문화재단 고유의 업무와 방향성, 시와의 유기적 업무 순환에 대한 부분을 고스란히 놓치고 말았다. 시립미술관의 경우에도 실제로 문화기반시설이 상당히 많이 구축된 대구가 문화예술도시를 지향하고 있음에도 공허한 외침으로 들리는 이유가 충분한 검토와 조사를 통한 시설건립이 아닌 일단 지어 놓고 내용을 채우려다 표류를 거듭하는 문화행정에 있음에도 그러한 원초적 문제제기는 찾아볼 수 없었다.

노곡동 문제는 원인 분석을 통한 재발방지와 사건의 책임을 묻는 것이었는데 대구시가 북구청에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행태에 대한 지적은 타당했으나 시민들의 불만과 요구가 큰 만큼 좀 더 끈질기고 날카롭게 대구시의 책임과 사과를 요구하여야 했다. 도시고속도로 지정체 문제 역시, 대구시가 도로공사의 요구사항을 예산이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은 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것이고 이후 대책 수립에서도 미온적인 태도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이를 지적하지 않은 것도 아쉬운 부분이다.

3) 시정정책을 평가하는 가치균형 부재의 문제

개발과 환경, 성장과 복지의 가치를 균형적으로 고려해야 하는데 시의원들의 개발편향, 성장편향 마인드가 지나치게 강하다. 이로 인해 기업, 성장, 개발로 치닫는 대구시의 정책을 견제하고 조화를 이끌어내는 힘이 너무 약하다.

그 예로 수목원의 수익성을 위해 예식장, 식당, 커피숍 건축이나 민간위탁을 요구하거나, 두류정수장 부지를 팔아서 상수도사업본부의 부채를 상환하라는 식으로, 친환경·친자연적인 대안보다는 효율성과 경제성을 우선하는 경향을 들 수 있다.

취수원 이전 문제 역시 이전이 당연하다는 입장에서만 볼 뿐, 오염원을 줄이기 위해 현실적 노력과 물 사고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 요구가 없었다는 점도 그러하다.

안전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큰데도 지하철 역사 민간위탁 문제를 덮어두는 것, 첨단의료복합단지에 매몰되어 심뇌혈관질환 지원사업 등 의료복지를 포기하는 것을 돌려세우지 못한 것, 기업유치나 지원에만 치중하고 구조조정 등에 의해 고용불안이 확대되고 있는 현실을 방치하는 등의 모습도 문제인 것이다.

4. 감사활동 우수의원

1) 행정자치위원회- 김원구의원

행자위 감사활동에서 상대적으로 활동이 돋보인 의원은 김원구의원이었다. 정책실

명제의 확대실시 요구, 사회단체보조금 균형적 집행과 책임있는 평가관리 점검 등 전체적으로 질의 의도나 시정 건의사항이 명확하고, 타 지역과 비교한 통계자료를 준비하는 등 연구노력도 엿보인다는 평가다.

2) 문화복지위원회- 배지숙의원

문복위 감사에서는 저출산 정책에 있어서 대구시가 추진한 여러 정책의 효율성과 시민생활과의 연관성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고 장기적인 대책을 질의 하였으며, 청소년 자살율에 대한 대구시의 정책, 심뇌혈관질환 등록관리 사업의 중단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의문에 대해 정확한 자료조사를 바탕으로 날카로운 질문으로 시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한 배지숙 의원이 돋보이는 활동을 하였다고 평가된다.

3) 경제교통위원회- 박성태의원

경교위의 감사활동에서 가장 돋보이는 활동을 펼친 의원은 박성태의원이다. 박의원은 국제학교 투자자의 투자약속 불이행 문제를 구체적 증빙을 통해 확인하고자 하였고, 투자약속 불이행에 대한 대구시의 조치미흡을 구체적으로 따졌으며, 투자자가 투자능력이 있는지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대구시를 질타하면서 구체적 검증을 촉구하였다. 이외에도 연구개발특구지정 관련 대구시의 일관성 부재로 인한 정책혼선을 강도높게 추궁하고, 연구개발특구지정 및 투자유치 관련 활동을 총괄적으로 기획, 조정할 행정기능, 시스템 마련의 필요를 구체적으로 주문하는 등의 노력이 돋보였다.

4) 건설환경위원회- 없음/ 상대적으로 돋보이는 의원을 찾기 어려움

5) 교육위원회- 김규학의원

교육위 감사활동은 전반적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했으나 그 중 김규학의원의 활동이 상대적으로 돋보였다. 질의 내용에 대해 논리적으로 접근하며 지속적으로 문제제기와 대안제시 노력으로 결과를 얻어내고자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특히, '사립학교 법정분담금' 납부가 10%이하라는 지적과 함께 똑같이 어려운데 90%가까이 분담하는 학교와는 형평성차원에서라도 전입금은 반드시 납부하도록 유도하고 법정교부금을 차등 지원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시한 점, 공시지가 수십년간 상승되었는데 법인기본재산변동 사항은 똑같이 세원자료가 미비하다는 점은 지적한 것 등이 그것이다.

<상임위원회별 감사활동 평가>

1. 행정자치위원회 활동평가

가. 주요 감사의제

행자위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진 사항은 ▲옴부즈만 운영실태 ▲행정정원이 적은 이유와 효율적 인사배치 문제 ▲자의적 비정보공개 문제 지적 및 자발적 정보공개 활성화 주문 ▲사회단체보조금 법정단체 중복지원, 균형감 부재의 문제 ▲형식적 민원처리에 따른 행정소송 등 불복으로 인한 시민불편과 행정낭비 문제 ▲정책실명제 이행상황 점검 및 실명제 확대 주문 ▲시산하 공원 등 사업소의 자판기 수익금 횡령사건에 대한 감사관실의 부실처리 책임추궁 등이다.

나. 눈에 띄는 감사내용

이 중 ▲사회단체보조금이 집행시 특정단체에 몰아주기식 지원을 방지하고, 균형적이고 투명한 지원을 위해 선정제도 개선 및 사업평가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한 것 ▲현재 시정정책의 책임자가 제대로 기명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을 전면적으로 확대하여 작은 사업이라도 책임성 있는 운영 등을 주문한 점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무책임하고 자의적 행정정보공개 관행을 근절하고, 행정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자발적인 정보공개목록을 작성, 공개할 것을 주문한 점 등은 의미있는 감사내용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 전체 약평

하지만 이번 행자위 감사에서 부족하고 아쉬운 점 또한 많다. ▲시민단체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요구한 사항 중 상당수가 이번 감사에서 다루어졌다는 점이다. 그러나 가볍게 다루어 졌을 뿐 깊이 있는 지적이나 답변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원론적인 질의에 그친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시민단체가 제시한 감사요구사항에 대한 사전 학습과 준비가 부족했다. ▲의원들의 질의 수준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 논리와 전문성으로 추궁하기 보다는 훈계하는 식의 어조로 감사에 임한 의원도 있었다. ▲활동태도나 감사의 적극성도 부족하였다. 감사에 불출석한 의원이 있는가 하면 다선의원인 경우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하지 않는 것으로 보였다. 초선의원의 경우는 활동의 적극성은 보였으나 전문적으로 파고드는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단답형으로 일관하는 등 너무 형식적인 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전체적으로 시민 생활에 직접적으로 맞닿아있는 문제를 드러내거나 시 행정에 시민의 참여를 어떻게 활성화하고 시정은 이에 어떻게 부응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이 깊이있게 다루어지지 못한 감사활동이었다.

라. 우수의원- 김원구의원

이번 행사위 감사활동에서 상대적으로 활동이 돋보인 의원은 김원구의원이었다. 정책실명제의 확대실시 요구, 사회단체보조금 균형적 집행과 책임있는 평가관리 점검 등 전체적으로 질의 의도나 시정 건의사항이 명확하고, 타 지역과 비교한 통계 자료를 준비하는 등 연구노력도 엿보인다는 평가다.

2. 문화복지위원회 활동평가

가. 주요 감사의제

문복위 감사에서는 보건복지, 여성, 문화예술, 관광, 체육 등 넓은 분야의 많은 의제들이 감사대상이 되었으나 그 중 주요하게 다루어진 사항은 보건복지여성분야의 경우 ▲포항인덕요양원 화재사건관련 대구시 복지시설의 소방안전 점검 현황과 실태 ▲보육시설의 평가기준과 예산 차등지급의 이유, 보육시설 지도점검내용과 조치사항 ▲산모도우미 파견사업 존폐 문제, 컬러풀 어린이 안심보험 중단 문제 등 저출산고령화사회 대책 ▲봉안당, 명복공원 환경개선 문제와 애활복지재단 관련 조치 ▲심뇌혈관 등록관리 시범사업 중단 문제, 이를 중단하고 스마트케어사업을 추진하는 문제 ▲성매매업소 집결지 관련 폐쇄 노력, 성매매 방지단속의지 및 신변종업소에 대한 대구시 대책 ▲사)지체장애인협회의회 전세금 2억 지원 특혜의혹 문제 등이다. 문화예술 및 관광분야방면은 ▲문화재단의 기금마련 및 대구박물관 건립문제 ▲시립미술관 입지와 운영체계 문제 ▲대구근대역사관과 시립박물관 및 전통문화컨텐츠 콘텐츠 확보 문제 ▲공연문화중심도시계획 중 일부와 디지털산업진흥원의 투자대비 실효성 문제 ▲대구시관광협회의 분쟁문제와 관광객유치 및 관광인프라 구축과 소셜네트워크를 활용한 홍보방식 도입 ▲팔공역사공원 백지화를 둘러싼 문제와 승시행사의 실효성 문제 ▲대구FC와 전국체전 성적, 생활체육과 청소년체육 활성화 정책 ▲신축 야구장 부지 문제와 생활체육부분 예산집행의 반복된 지적사안 미개선 문제 등이다.

나. 눈에 띄는 감사내용

문복위 감사에서는 시민단체가 감사를 요구하였던 저출산정책, 보육시설의 지도점검내용과 조치사항, 심뇌혈관 등록관리 시범사업, 사)지체장애인협회의회 전세금 지원 문제 등이 다소간 다루어진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특히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한 의원들의 관심과 청소년 자살률 1위인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대구시의 정책적인 현황을 날카롭게 따져 묻는 질의는 신선했다. 아울러 심뇌혈관질환 진료지원사업이 중단된 이유와 행정의 책임을 묻고, 이것은 중단하면

서 스마트케어 사업에 별도의 큰 예산을 들이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 또한 눈에 띄었다. 대구야구장 부지선정 문제와 문화재단의 기금마련, 시립미술관의 부지와 기능, 한상대회 이후 제기된 국제행사 유치시 우려되는 제반조건의 문제에 대해서도 의원들이 복수로 질문을 거듭하면서 중요하게 다루었으며, 시립미술관의 경우, 부지선정의 적절성 문제, 민투사업에 따른 목적성 변질 문제, 용도의 모호함에 대한 질문 등도 적절했다고 보여진다.

그 외에도 저출산 정책, 애활원 문제, 봉안당과 명복공원 관련 질의 등 지역의 사건이며 많은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내용 질의는 시민들의 좋은 평가를 받을 것이다.

다. 전체 약평

그러나 특혜의혹, 시 정책의 방향과 실행의지 등을 따져 묻고 감시하는 행정감사라고 보기에는 자료준비, 의원들의 감사에 임하는 태도 등이 부실해 보였다. 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의 기본적 데이터도 조사하지 않아 현장에서 담당자에게 묻는가하면 감사 중에 줄거나 10여분 이상 자리를 뜨는 의원들도 보였다.

또한 질의 내용이 용두사미로 시작은 거창하게 했으나 날카롭게 본질을 따져 묻지 못하고 슬그머니 정리하는 질의도 허다했고, 특히 일부의원은 지나치게 잡다한 민원에 집착한 질의를 하거나, 지인이 어떤 이야기를 하길래 물어봤다거나, 아는 의원이 이렇다고 추천하길래 이야기한다는 경우가 많아서 시의회의 수준에 걸맞는 조사나 연구가 아니라 개인적인 취향에 기대어 질의하는 경우도 있었다.

게다가 성매매가 허가되는 지역이 있는가 하고 질의하여 실소를 잦아낸 의원도 있어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되었고 성매매는 불법이라는 것을 모르는 의원이 있음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문화재단의 경우 재단의 업무에 대한 언급보다는 지나치게 기금마련 문제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문화재단 고유의 업무와 방향성, 시와의 유기적 업무 순환에 대한 부분을 고스란히 놓치고 말았다. 시립미술관의 경우에도 실제로 문화기반시설이 상당히 많이 구축된 대구가 문화예술도시를 지향하고 있음에도 공허한 외침으로 들리는 이유가 충분한 검토와 조사를 통한 시설건립이 아닌 일단 지어놓고 내용을 채우려다 표류를 거듭하는 문화행정에 있음에도 그러한 원초적 문제제기는 찾아볼 수 없었다.

라. 우수의원-배지숙의원

문복위 감사에서는 저출산 정책에 있어서 대구시가 추진한 여러정책의 효율성과 시민생활과의 연관성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고 장기적인 대책을 질의 하였으며, 청소년 자살율에 대한 대구시의 정책, 심뇌혈관질환 등록관리 사업의 중단에 대한 시

민단체들의 의문에 대해 정확한 자료조사를 바탕으로 날카로운 질문으로 시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한 배지숙 의원이 돋보이는 활동을 하였다고 평가된다.

3. 경제교통위원회 활동평가

가. 주요 감사의제

경교위 행정사무감사에서서는 대구시의 경제, 교통정책에 관한 광범위한 질의와 지적이 있었으나 그 중 주요하게 다루어진 쟁점의제는 ▲국제학교 투자자의 투자협약 불이행과 대구시의 부실행정 문제 ▲ssm의 횡포와 중소기업, 전통시장 상생 대책 ▲기업투자유치 관련 역내기업 유사기업 중복유치로 인한 피해와 투자유치활동 평가시스템 도입 문제 ▲솔라시티 정책포류와 대책 ▲신성장동력사업에 기업의 투자 저조 및 지방비 과다 매칭으로 인한 재정압박 문제와 대책 ▲연구개발특구지정 관련 대구시의 정책혼선과 행정지도 부실 문제 ▲국립과학관 국비보조가 대전의 100%와 달리 70%밖에 되지 않는 것에 관한 책임 추궁 ▲도시가스 요금인하 요인 발생 등에 따른 초과수익의 저소득층 도시가스공급 등 사회투자 이행 문제 ▲한일 극장 횡단보도 설치약속 지연, 자전거도로 노선설정 실패 등 보행 및 자전거 정책 대책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및 반월당 현대백화점 교통유발로 인한 교통혼잡 문제와 대책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 대책과 지하철 역사 민간위탁으로 인한 안전 및 서비스 부실 대책 ▲지하상가 에스컬레이트 작동 중단에 대한 행정조치 및 지하상가 수익증대 대책 등이다.

나. 눈여겨보는 감사내용

그 중 ▲국제학교에 200만불을 투자하기로 했던 미국 투자자가 투자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이사회를 장악하고, 학교운영이 학생들의 등록금, 급식비 등에 의존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투자자의 투자능력 검증 부재 및 투자약속 불이행에 대한 조치 미비 등 대구시의 부실행정을 추궁한 것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사업화한다는 연구개발특구사업이 당초 취지와 달리 기업들의 특성과 요구를 감안하지 않고 제조업이 많은 지역에 특구지정을 추진하는 등 정책 일관성 부재와 기업들에 대한 정보제공 등 행정노력 부재로 기업들이 특구지정을 기피하는 등 정책의 혼선을 빚은 문제에 대한 지적과 관련 특구나 산업단지의 기관, 사업들을 총괄적으로 기획, 조정하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촉구한 점 ▲신성장동력사업비 중 기업의 투자가 매우 저조하고, 국비 매칭도 수도권은 74%인데 대구는 35%에 불과하여 시 재정압박의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과 기업투자를 위한 행정의 리더십 및 지방비 매칭 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책을 촉구한 점 등은 눈에 띄는 감사활동으로 평가할 만하다.

다. 전체 약평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경교위의 감사활동은 위원회가 소관하는 시 행정업무와 시정정책의 중요도에 비해 시의회의 정책검증, 오류 지적 및 시정조치와 대안을 이끌어 내는 노력이 부족하였다고 판단된다. 많은 의원들이 시정책심 정책들을 파고 들지 못하고 주변적 정책들에 대한 가벼운 지적에 그치거나 매년 반복되는 문제를 체크하는 수준을 넘어서지 못했다. 중요한 시책에 대한 의원들의 사전학습이 부족하고 행정의 오류를 찾아내기 위한 깊이 있는 연구가 부족했다고 볼 수 있다. 또 중요한 정책에 대한 질의, 지적도 중저강도에 머물렀으며 매섭게 추궁하여 책임을 묻거나 대책을 제시하여 답변을 받아내는 데까지 이르지 못하였다.

한편, 개인적 사정을 불문하고 몇몇 의원의 경우 몇십분씩 지각한다거나 감사 도중 수십분간 자리를 이탈하는 등의 모습을 보인 것도 가볍게 볼 문제는 아니라 할 것이다.

라. 우수의원- 박성태의원

끝으로 이번 경교위의 감사활동에서 가장 돋보이는 활동을 펼친 의원은 박성태의원이다. 박의원은 국제학교 투자자의 투자약속 불이행 문제를 구체적 증빙을 통해 확인하고자 하였고, 투자약속 불이행에 대한 대구시의 조치미흡을 구체적으로 따졌으며, 투자자가 투자능력이 있는지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대구시를 질타하면서 구체적 검증을 촉구하였다. 이외에도 연구개발특구지정 관련 대구시의 일관성 부재로 인한 정책혼선을 강도높게 추궁하고, 연구개발특구지정 및 투자유치 관련 활동을 총괄적으로 기획, 조정할 행정기능, 시스템 마련의 필요를 구체적으로 주문하는 등의 노력이 돋보였다. 끝.

4. 건설환경위원회 활동평가

가. 주요 감사의제

건환위 역시 피감기관과 관할 사업들이 많아 다양한 의제들이 다루어 졌는데 그중 비중있게 다루어진 것으로는 ▲특색없는 대구시 도시디자인 정책과 도시브랜드 문제 및 관련 간판정비사업 문제점과 불법광고물 대책 ▲미분양아파트 해소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개선 문제 ▲쓰레기매립장 건축폐기물 불법 반입 문제 ▲발암물질 석면피해 대책 ▲노곡동 침수문제 책임문제와 방지대책 관련 ▲도시고속도로 지정체 관련 대구시 부실행정과 대책 문제 ▲낙동강취수원 이전 관련 행정대책 부재 ▲달성습지보전대책 등이었다.

나. 눈에 띄는 지적사항, 기대에 못미치는 감사활동

대구시의 특색이 반영되지 않은 디자인에 대한 지적, 지역별 특색을 살리는 도시 브랜드를 추구하자는 지적은 있었으나, 구체적 대안이나 지적은 없었다. 특히 대구시의 공공건축물에 대한 협의기구를 심의기구화하라는 지적은 구, 군별 특성을 고려해 추진해야 하는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지 못한 부적절한 지적으로 보인다. 아울러 간판정비사업의 추진성과와 지속 추진여부에 대한 질의가 부족하고,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에만 그친 것도 아쉬운 부분이다.

제일모직 부지 문제와 관련돼 대구시의 도시정책 부재 문제를 지적한 것이나 주택 정책에 대한 대구시의 소극적 자세와 미분양아파트 해소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 노력을 촉구한 점은 적절하였으나 보다 적극적인 질의와 구체적인 답변을 끌어내지 못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대구수목원의 자체 수익증대를 위해 야외예식장, 커피숍, 식당 건축 등을 요구하거나 민간위탁 등의 방안 마련을 요구한 것은 수목원의 공익적 기능을 고려하지 않고 효율성과 경제성만 강조한 잘못된 지적으로 보인다. 쓰레기매립장에 들어올 수 없는 건축폐기물이 불법적으로 반입되는 것에 대한 단속 필요성을 지적한 것이나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의 위험성을 언급하며 대구시의 종합관리계획이 꼭 필요하다는 지적도 적절하였다.

노곡동 문제는 원인 분석을 통한 재발방지와 사건의 책임을 묻는 것이었는데 대구시 건설심의위원회의 책임을 묻고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안일한 대구시의 책임을 묻는 질의가 돋보였고 대구시가 복구청에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행태에 대한 지적도 타당했으나 시민들의 불만과 요구가 큰 만큼 좀 더 끈질기고 날카롭게 대구시의 책임과 사과를 요구하였어야 했다.

도시고속도로 지정체 문제 관련, 대구시가 도로공사의 요구사항을 예산이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은 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것이고 이후 대책 수립에서도 미온적인 태도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이를 지적하지 않은 것도 아쉬운 부분이고, 달성습지보존과 관련해서는 추후에 따로 보고하겠다는 비상식적 답변에 대해서도 제대로 따지지 않은 것도 감사 주체의 엄격한 태도로 볼 수 없다.

상수도사업본부 감사 중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한 사안이 취수원 이전 문제였으나 이에 대한 의원들이 모두 '취수원 이전 적극 추진' 입장에서 구미지역의 이전 반대 여론을 사전 협의를 통해 막지 못한 책임, 이전 필요성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책임 등을 지적하였다. 반면 어느 한 의원도 취수원 이전의 타당성이나 수자원의 민영화 방향의 문제 등 근본적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점은 정책논의의 균형성

부채를 드러낸 부분이다.

다. 전체 약평

소속 의원들이 대체로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했다. 그러나 건환위 소속 의원들은 건설개발과 환경보존의 가치를 균형적으로 고려해야 하는데 개발편향, 환경마인드 부족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수목원의 수익성을 위해 예식장, 식당, 커피숍 건축이나 민간위탁을 요구하거나, 두류정수장 부지를 팔아서 상수도사업본부의 부채를 상환하라는 식으로, 친환경·친자연적인 대안보다는 효율성과 경제성을 우선하는 경향을 볼 수 있었다. 취수원 이전 문제 역시 오염원을 줄이기 위해 현실적 노력과 물 사고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 요구가 없었다는 점도 문제다.

또한 전반적으로는 감사에 충실한 모습을 보이고자 했으나 노곡동 문제를 제외하고는 치밀한 감사가 되지 못했다. 준비부족과 핵심 사안을 간파하지 못한 듯한 아쉬움이 있으며 집행부의 불성실하고 애매모호한 답변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질의로 확실한 답을 얻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하였다.

자기 소속 지역구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감사태도도 문제다. 다른 구에는 뭐든 하는데 우리 구는 이것도 안 된다는 식으로 지역 이기주의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시의원으로서의 적절한 태도는 아닐 것이다. 지역구를 떠나 대구시의 고른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의원 상이 필요하다.

라. 우수의원- 선정하기 어려움

특정한 사안이나 부분 부분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따지고 질의하는 의원들이 없지 않았으나 전체 활동에서 특별히 돋보이는 의원을 찾기는 어려웠다. 선정을 위한 선정이 중요한 것은 아니므로 건환위는 우수의원을 선정하지 않기로 하였다.

5. 교육위원회 활동평가

가. 주요 의제

교육위원회 감사에서는 ▲교장들의 과도한 외부 출장일수로 인한 학교 운영 문제 ▲교육청 관내 학교 공사 수의계약의 기준이 불명하고 비교견적서가 없는 등 업체 선정부터 공사 전반의 투명성 부재의 문제 ▲무상급식 관련 문제 ▲보건교사 부재의 위험성 ▲인사과정의 투명성 확보 문제 ▲국제학교 관리전환 관련 문제 ▲학교 운동장 인조잔디의 환경유해성 문제 ▲사립학교의 법정전입금 납부가 전무한 문제 ▲사서교사 충원문제 ▲학원의 불법 심야학습과 고액과외 문제 등이 주요하게 다루

어졌다.

나. 전체 약평

교육위원회 감사활동은 학부모, 시민들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였다고 보인다. 핵심적으로는 교육 현장에서 학생이 어떠한 입장에서 어떠한 교육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진지한 질문이 거의 없었다는 점이다. 학생 인권이나 인성, 복리보다는 학력 신장 주문과 교원 처우 대책 마련 지시에 비중이 실려 있었던 것이다.

그 외 의원들의 감사행태도 문제다. 본인이 요청한 자료가 제출되었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재차 요구하거나, 본인 질의가 끝나면 장시간 자리를 이탈하거나, 감사도중 줄거나 하품을 하는 등 감사활동의 성실성이 부족하였다.

뿐만아니라 교육정책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인양 질의하는 등 전문성이 부족함을 드러내고, 집행부의 형식적 답변에도 추가적인 질의나 요구없이 질의를 위한 질의에 그치는 경우도 많았다. 더구나 학교폭력 사건 등 학교측의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에 오히려 격려로 일관하는 등 교육위원의 감사태도에 역행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어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질의의 요점이 무엇인지, 이를 통해 무엇을 시정요구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하지 않고 애매하고 앞뒤가 맞지 않는 발언들은 매우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예를 들어, 불법 심야학습, 고액 과외 고발관련 학과라치 지급비용 예산낭비를 지적하며 부실단속 문제를 제기하는 것까지는 좋았으나, 갑자기 규제를 완화하던지 해야한다는 주장을 함으로써 학과라치 단속 강화를 통해 학원불법영업 단속을 제대로 하여 정책의 연착륙을 유도하라는 것인지, 학과라치 제도를 없애라는 것인지 분간하기 어려웠다. 대구학생문화회관 공연이 대관보다 자체공연이 훨씬 많다는 답변에도 불구하고 대관공연을 줄이고 자체공연을 많이 하는 게 맞지 않냐고 항의하는 모습은 도대체 뭘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다. 우수의원- 김규학 의원

교육위 감사활동은 전반적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했으나 그 중 김규학의원의 활동이 상대적으로 돋보였다. 질의 내용에 대해 논리적으로 접근하며 지속적으로 문제제기와 대안제시 노력으로 결과를 얻어내고자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특히, 달성군의 무상급식이 결정될 동안 더 어려운 서부사정 호소에 둔감하지 않았냐고 책임감 일깨운 발언, '사립학교 법정분담금' 납부가 10%이하라는 지적과 함께 똑같이 어려운데 90%가까이 분담하는 학교와는 형평성차원에서 전입금은 반드시 납부하도록 유도하고 법정교부금을 차등 지원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시한 점, 공시지가 수십 년간 상승되었는데 법인기본재산변동 사항은 똑같이 세원자료가

미비하다는 점은 지적한 것 등이 그것이다.